

국내 언론매체의 이념성향과 뉴스구성에 대한 연구 : 미 대선 후보 '버니 샌더스' 관련 보도의 의미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Ideological Orient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News about Korean News Media : Focused on a Semantic Network Analysis for Articles about 'Bernie Sanders'

이혜미, 김혜영, 유승호
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

Hye-Mi Lee(leehm0818@kangwon.ac.kr), Hye-Yeong Gim(hygim87@kangwon.ac.kr),
Seoung-Ho Ryu(shryu@kangwon.ac.kr)

요약

본 연구는 국내 주요언론이 이념성향에 따라 보도 프레임을 달리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미국 대선 후보 주자였던 '버니 샌더스'를 대상으로 뉴스보도의 의미연결망을 분석하였다. 버니 샌더스라는 인물은 '미국'이라는 보수의 가치와 '불평등 해소'라는 진보의 가치를 동시에 지닌 인물이어서 언론의 이념적 차이가 잘 드러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빈도순위를 비교해 본 결과, 보수언론은 '사회주의자'와 '흑인'이라는 단어를, 진보언론은 '불평등'과 '문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은 '한국'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전혀 다른 의미구성을 보였다. 진보언론은 샌더스가 지적하는 사회문제와 기성정치에 대한 비판을 '한국'사회에 접목하여 이야기하고자 했다면, 보수언론은 '한국'이라는 단어와 구체적인 정당, 그리고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해 샌더스와 닮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노골적인 표현으로 비난했다. 이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함에도 전혀 다른 관점과 맥락에서 보도하는 경향성을 파악한 것으로, 사안에 대한 언론사의 의미구성이 이념적 지향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주요 단어들의 사용빈도 뿐만 아니라 단어들 간의 연결 강도와 중심성을 토대로 뉴스구성의 맥락을 해석했다는 점에서 보도분석을 위한 방법론의 확장에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 중심어 : | 버니샌더스 | 이념성향 | 프레임 | 의미연결망 분석 |

Abstract

This study utilized a semantic network analysis for Korean major newspaper articles concerning 'Bernie Sanders'. 'Bernie Sanders' promotes conservative values of 'Americana' as well as the progressive values of 'relieving inequality', and thus, perhaps he is a subject on which ideological differences between the press can be distinctively manifest. Upon comparison of the priority of frequency between the conservative press and progressive press, the conservative press frequently used the expressions, 'socialist' and 'black man', whereas the progressive press frequently used the expressions, 'inequality' and 'problem'. Both the conservative press and progressive press displayed particularly different semantic compositions with the term, 'Korea'. The progressive press aimed to express the criticism of social problems and established politics identified by Sanders in relation to the 'Korean' society, whereas the conservative press criticized the blunt expressions stating that a specifically named politician resembles Sanders, and the specific party and term of 'Korea'. A completely different disposition of reports from different perspectives and context was ascertained, regardless of the use of the same terms. Thus, it is demonstrated that the semantic composition of the press on a specific issue displays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ir ideological disposition.

■ keyword : | Bernie Sanders | Ideology | Frame | Semantic Network Analysis |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3A2044729)

접수일자 : 2016년 06월 08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7월 14일

수정일자 : 2016년 07월 06일

교신저자 : 유승호, e-mail : shryu@kangwon.ac.kr

I. 서론

Feel the Bern!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경선에 참가한 73세의 정치인, 버니샌더스가 '돌풍'을 일으켰다[1]. '샌더스 돌풍', '샌더스 현상', '샌더스 신드롬', 2016 미 대선 후보로 등장한 미국의 정치인 '버니 샌더스'를 둘러싼 사회적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버니 샌더스는 부와 소득의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며, 정치혁명을 외친다. 이는 샌더스가 근 40년간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는 메시지로,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나오므로써 1%를 위한 정부가 아니라 99%를 위한 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그의 슬로건이다. 1%에 모든 부가 집중되고 99%의 국민이 고통받는 사회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월가를 비롯한 기득권 계층의 개혁을 선언하며 슈퍼팍 거부, 풀뿌리 시민들로부터의 소액후원을 통해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소신있고 일관된 그의 행보에 젊은층을 중심으로 미국 대중들은 열광적인 지지를 보였다.

이러한 '샌더스 현상'에 대해 국내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 미국의 대통령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는 점에서 자국 언론을 비롯해 전 세계의 언론이 주목하는 이슈다. 한미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에 대한 국내 보도는 언론사의 이념성향에 따라서 우호적인 입장과 비판적인 입장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2-4]. 하지만 샌더스의 경우, 자본주의의 상징인 미국에서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이례적인 인물이다. 단순히 미국 대선의 유력한 후보가 아니라 좌파성향을 가진 미국의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동시에 지닌 인물이기 때문에 기존의 보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미 대선 후보 '버니 샌더스'에 대해 국내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언론사의 이념성향에 따라 보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기법을 활용하여 텍스트가 위치한 사회적 맥락, 의미 연결망 구조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기존의 언론보도 분석연구는 프레임 분석방법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이는 연구자가 설정한 프레임을 분석유목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의미연결망분석은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 없이 주요 단어와 단어 사이의 연결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전체적인 의미구조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적절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하며, 언론보도 분석을 위한 방법론의 확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 이론적 논의

1. 언론의 현실구성과 이념성향

사람들은 뉴스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된다. 특히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사안인 경우 모든 정보를 언론을 통해서 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홀(Hall, S)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현실은 이를 기술하기 위해 특정한 언어, 기호가 선택되는 과정까지 각기 다른 이해를 가진 집단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생산된다[5]. 뉴스를 현실구성적 시각에서 분석한 터크만(Tuchman, G) 역시, '뉴스'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새롭게 재구성된 현실이라고 설명한다[6]. 보도를 통해 제시되는 내용은 언론사와 언론인의 특성이 부여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한 틀(frame)에 의한 의미 규정 방식이 형성 된다는 것이다. 의미 규정 방식은 현실에서의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줄이거나 특정 부분을 강조한다. 같은 사안이라도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7]는 점에서 중요하며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특정 사안에 대한 뉴스구성에서 해당 언론사의 이념성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3][8-17]. 석승혜·장예빛·유승호는 사회구조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이념성향을 언급하면서 만하임(Mannheim)과 조스트(Jost)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념성향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다[18-20]. 이에 따르면 이념성향이란 '사회의 바람직한 목표와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는 방법에 대한 신념체계(belief system)'이다. 여기서 신념체계라는 것은 어떠한 선택이나 판단에 있어 사실성이나 객관성보다 신념이 더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념성

향은 크게 보수와 진보로 구분 짓는데, 보수성향은 사회발전방식을 두고 기존의 질서를 고수하려는 입장이고 진보성향은 사회의 발전 방식을 두고 기존의 질서를 개혁하려는 입장을 취한다[21].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념대립이 발생할 때, 보수와 진보 중 어떤 입장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발전 방식에 대한 신념의 차이로 접근해서 파악해야 한다.

국내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념성향에 따라 대표적인 보수언론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진보언론으로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념적으로 가장 뚜렷하게 대립을 보이는 언론보도의 사안으로는 북한에 대한 이슈를 꼽을 수 있다. 북한관련 이슈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언론사가 이념성향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확고한 입장을 드러낸다. 한동섭[16]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관한 기사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한 현상에 주목하며 국내 언론이 북한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현실을 실증하고자 하였다. 조선일보는 논조와 시선에서 비우호적이고 부정적으로 북한에 대해 보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겨레의 경우 북한에 대한 관계개선을 희망하는 등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도하고 있음을 파악해 이념이 다른 두 언론사의 뚜렷한 보도차이를 규명했다.

북한이슈 뿐만 아니라, 국내언론보도를 분석한 관련 연구들은 정부정책, 경제적인 차원의 사안에 대해서도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 뚜렷한 대립을 보인다는 것을 검증하고 있다. 선거보도 관행에 대해서 분석한 노동렬[22]은 국내언론의 선거보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각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기 위한 보도 양태를 지적하며, 진보언론이 이념에 따른 의견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명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과학적인 정보 등 일반적으로 불편부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의 경우에도 언론사의 이념성향이 작용한다. 이건호와 고흥석[23]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관련 보도를 분석하여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상반된 입장을 확인했다. 국내 5개 일간지를 선정하여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보수언론으로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진보언론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 진보언론인 경향신문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해 가장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고, 보수언론인 중앙일보가 그 반대의 축에서 찬성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이념성향으로 인한 보도프레임의 차이가 극명하지 않을 것이라 간주되었던 분야의 이슈에서도 이념대립이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진보와 보수의 대표적인 언론사로 구분지어지는 한겨레와 조선일보가 해당 이슈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언론사가 가진 이념성향이 보도하는 사안에 따라 달리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최현주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24]. 이슈에 따라 이념성향이 다른 언론사의 보도를 분석한 결과, 대북지원 관련 이슈에서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보수, 한겨레가 진보성향을 드러냈으며, 경향신문과 중앙신문은 중도적인 입장을 보였다. 종부세 폐지에 대한 이슈의 경우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가 보수성향,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진보성향을 보였다. 호주세 폐지에 대한 이슈의 경우 조선일보는 중립, 중앙일보·동아일보·한겨레·경향신문은 진보성향을 드러내, 사안에 따라서 언론사의 이념성향 차이가 발생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에 기존연구들이 별도의 검증 없이 사회적 통념에 따라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먼저, 한국에서의 이념을 정치와 경제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국내 언론사의 이념을 밝히고자 했다. 사실이 보도 유형중 언론사의 이념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좋은 텍스트라고 보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의 사설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정치 분야의 이슈로 한미관계, 진보당, 국가보안법, 경제분야 이슈로는 복지정책, 미디어 법을 선정하여, 각 언론사의 이념성향을 분석한 결과 모든 사안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보수성향,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진보성향을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이념성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3].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보수언론으로,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진보언론으로 구분하여 이들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2. 미국 관련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한 선행연구

한미 FTA 관련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보도를 분석한 심홍식의 연구에 따르면, 각 언론보도에 나타난 한미 FTA에 관한 프레임이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잣대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4]. 조선일보는 한미동맹 프레임을, 한겨레는 자주 프레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프레임에서 조선일보는 국제경쟁력 강화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한겨레의 경우 이익 불균형 프레임이 가장 많았다. 보수언론인 조선일보가 한미FTA를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 및 개방의 관점에서 우호적으로 보는 반면, 진보언론인 한겨레신문은 이익불균형과 경제적 약자보호, 준비 부족의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미국에 대한,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 이념을 달리한 두 언론사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드러남을 밝혔다.

설원태[25]는 한미관계에는 비대칭현상이 존재함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양국의 대통령에 대한 언론 보도에도 반영되고 있는지 이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조선일보의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정권시기별로 보도프레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초반부 한미관계에서 미국의 대통령을 영웅화에서 보도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면, 한국의 정권이 바뀌고,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록 영웅적으로 묘사하는 프레임이 변화한다는 것을 파악했다. 하지만 한국의 대통령을 묘사하는 프레임에 비해서 미국 대통령을 우호적인 관점에서 보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언론은 조선일보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기 때문에 언론 이념성향을 차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조선일보의 보도경향을 통해 보수언론이 미국에 대한 이미지를 우호적인 입장에서 묘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기존의 미국에 대한 언론의 입장을 밝힌 논의들을 봤을 때 보수언론의 우호적인 시각, 진보언론의 비판적인 시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접근할 수 있다[2-4][25]. 하지만 버니 샌더스의 경우 유력한 미국 대선 후보이자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 스스로 사회주의자임을 자처하는 좌파 성향의 정치인이다.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동시에 지닌

인물이라는 점에서 국내 언론사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보도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2016 미국 대선 후보 '버니 샌더스'라는 인물을 국내 언론사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며, 언론사가 가진 이념성향에 따라 보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국내언론은 '버니샌더스'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가?

연구문제2 '버니샌더스'에 대한 국내언론보도는 언론사의 이념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I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분석시기

본 연구는 버니 샌더스를 국내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국내 주요 일간지인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언론사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보도에 차이를 보였다는 기존 선행연구[3][8][10-12][14-16]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보수언론, 『한겨레』, 『경향신문』을 진보언론으로 구분하여 이들 언론사간의 차이를 보고자 했다.

분석 시기는 출마를 선언한 시점부터 현재로 설정했다. 이에 2015년 4월 1일부터 최근 2016년 4월 1일까지의 기사를 수집했다. 기사 검색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검색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인 '카인즈'(www.kinds.or.kr)를 사용하였고, 조선일보의 경우 카인즈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언론사의 아카이브를 사용했다. 검색 키워드는 『샌더스』를 사용했다. 검색된 기사에서 버니 샌더스가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은 기사의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조선일보』 38건, 『동아일보』 18건, 『한겨레』 41건, 『경향신문』 88건으로 총 185건의 기사를 추출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분석방법

위 과정을 통해 수집한 기사는 의미연결망분석 방법

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각 기사에서 의미 없는 조사와 어미, 문장부호 및 관사, 접속사, 접미사, 숫자 등을 제거하는 정제작업을 거친 후 ‘명사’를 중심으로 단어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동의어 및 유사 맥락을 지닌 단어들은 하나의 대표 단어로 치환하였다. 예를 들어 ‘힐러리’, ‘힐러리 클린턴’, ‘클린턴 전 장관’ 등 힐러리 클린턴을 지칭하는 말은 ‘힐러리’로, ‘젊은이’, ‘젊은층’, ‘젊은 세대’, ‘청년’ 등 청년세대를 의미하는 단어들은 모두 ‘젊은층’으로 통일하였다. 동의어들 혹은 유사 맥락을 지닌 파생어들을 개별적으로 집계할 경우, 각 단어의 빈도수가 낮아져 해당 단어가 지니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전체 의미연결망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제된 데이터는 KrKwic을 통해 주요 단어를 추출한 뒤 UCINET이라는 연결망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화하였다. UCINET은 공동 출현하는 단어 간의 연결망을 시각화하여 표현하는 소프트웨어로 수량화된 데이터가 어떠한 연결 구조를 가지는지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준다. 단어 간의 연결 관계 구조를 시각화함은 물론, 연결 강도, 그리고 특정 단어가 전체 연결망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26]. 이를 통해 버니 샌더스에 관한 국내언론보도의 의미화경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IV. 분석결과

분석을 통해 추출한 단어는 연구 목적을 고려하여 인물, 지역, 정당 등의 명칭 및 여론조사 관련 어휘는 제외하였다. 또한 빈도수 5이하인 단어들은 중요도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빈도수 6이상의 단어들만 추출하여 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결망분석에는 조선일보 127개, 동아일보 86개, 한겨레 157개, 경향신문 554개의 단어를 사용하였다.

1. 언론사별 주요단어 사용 빈도

『조선일보』는 ‘승리’라는 단어가 62회(26.27%)로 가장 많이 등장했으며, ‘지지’(27회), ‘젊은층’(25회), ‘흑

인’(24회), ‘정책’(23회), ‘기성정치’(18회), ‘사회주의자’(17회), ‘돌풍’(15회), ‘불평등’(13회), ‘분노’(12회)순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는 ‘월가’(43회)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했으며, ‘사회주의자’(40회), ‘유대인’(27회), ‘공약’(22회), ‘정치혁명’(16회), ‘승리’(15회), ‘흑인’(15회), ‘지지’(14회), ‘비판’(11회), ‘민주적’(10회)순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지지’(73회)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했으며, ‘승리’(57회), ‘아웃사이더’(32회), ‘문제’(25회), ‘사회주의자’(25회), ‘불평등’(24회), ‘기성정치’(23회), ‘정책’(22회), ‘돌풍’(21회), ‘중산층’(21회) 순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은 ‘지지’(146회)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했으며, ‘좌파’(65회), ‘흑인’(58회), ‘우리’(53회), ‘문제’(52회), ‘월가’(51회), ‘불평등’(50회), ‘한국’(50회), ‘승리’(49회), ‘변화’(48회) 순으로 나타났다.

언론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주요 단어는 ‘승리’와 ‘지지’이다. 버니 샌더스가 코커스와 프라이머리에서 승리한 사실 전달에 대한 기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론사의 이념성향에 따라 사용된 주요단어의 빈도순위를 살펴봤을 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사회주의자’와 ‘흑인’이라는 단어가 ‘승리’와 ‘지지’ 다음 순으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이는 보수언론이 샌더스에 대한 보도에서 사회주의자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샌더스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소수층인 ‘흑인’을 주요 단어로 사용하여 샌더스의 반대론에 대해 비중있게 보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칭 ‘민주적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극좌에 가까운 아웃사이더”
- [터치! 코리아] 파시스트를 뽑을까, 사회주의자를 뽑을까(2016.01.23)

“주류 언론은 여전히 샌더스의 최종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샌더스 지지층은 급진적 성향의 백인이 다수여서, 표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 누가 샌더스를 ‘힐러리의 샌드백’이라 했나

(2016.01.21)

“흑인 인구가 많은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현재 지지율이 6대4 정도로 힐러리가 압도적이다” -네바다에서 활짝 웃은 힐러리... 대세론 다시 접화(2016.2.22.)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불평등’과 ‘문제’가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이는 진보언론이 샌더스가 지적하는 현 미국 사회의 문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비증있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향신문의 경우 다른 언론사와 달리 ‘한국’이라는 단어가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을 고려했을 때 진보언론은 샌더스가 지적하는 미국 사회의 문제점을 한국사회에 접목해서 보도하고자 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샌더스에게 한국 진보의 길을 묻다”
- 경향신문 헤드라인(2016.03.04.)

“샌더스 돌풍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정치 역시 민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빈부 격차는 심해지고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지는데, 보수 정권은 자본의 편에서 있고 진보파는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사설]미국 대선에서 무소속 샌더스 돌풍이 의미하는 것(2015.07.07.)

“다만 미국 대선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민심의 흐름은 총선과 대선을 앞둔 한국에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 한국 역시 양극화 심화에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그럼에도 한국 정치는 민의를 담아내지 못한다. ...바닥 민심에서 느껴지는 불만 또는 분노의 본질은 한국이라고 미국과 다를 바 없다. 민심과 괴리된 정치는 끝내야 한다.

- [사설]불평등 사회에 불어닥친 미국 대선의 샌더스 돌풍(2016.02.10.)

버니 샌더스 관련 보도에 사용된 주요 단어의 빈도분석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언론사별 주요 단어 빈도 분석 결과

주요단어	보수언론		진보언론		합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	
공약	-	22 (10.33%)	-	-	22 (1.58%)
기성정치	18 (7.63%)	-	23 (7.12%)	-	41 (2.94%)
돌풍	15 (6.36%)	-	21 (6.5%)	-	36 (2.58%)
문제	-	-	25 (7.74%)	52 (8.36%)	77 (5.52%)
민주적	-	10 (4.69%)	-	-	10 (0.72%)
변화	-	-	-	48 (7.72%)	48 (3.44%)
분노	12 (5.08%)	-	-	-	12 (0.86%)
불평등	13 (5.51%)	-	24 (7.43%)	50 (8.04%)	87 (6.24%)
비판	-	11 (5.16%)	-	-	11 (0.79%)
사회주의자	17 (7.2%)	40 (18.78%)	25 (7.74%)	-	82 (5.88%)
승리	62 (26.27%)	15 (7.04%)	57 (17.65%)	49 (7.88%)	183 (13.13%)
아웃사이더	-	-	32 (9.91%)	-	32 (2.3%)
우리	-	-	-	53 (8.52%)	53 (3.8%)
유대인	-	27 (12.68%)	-	-	27 (1.94%)
월가	-	43 (20.19%)	-	51 (8.2%)	94 (6.74%)
정치혁명	-	16 (7.51%)	-	-	16 (1.15%)
젊은층	25 (10.59%)	-	-	-	25 (1.79%)
정책	23 (9.75%)	-	22(6.81%)	-	45 (3.23%)
좌파	-	-	-	65 (10.45%)	65 (4.66%)
중산층	-	-	21 (6.5%)	-	21 (1.51%)
지지	27 (11.44%)	14 (6.57%)	73 (22.6%)	146 (23.47%)	260 (18.65%)
한국	-	-	-	50 (8.04%)	50 (3.59%)
흑인	24 (10.17%)	15 (7.04%)	-	58 (9.32%)	97 (6.96%)

2. 주요단어간 의미연결망 및 중심성 분석 결과

2.1 조선일보

‘지지’, ‘승리’, ‘젊은층’, ‘사회주의자’, ‘현실’, ‘정책’은 사용빈도나 연결망상에서 중심이 되는 단어로, 노출빈도가 높은 동시에 다른 단어와 함께 등장하며 전체 문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

은총', '사회주의자', '현실', '정책'은 조선일보가 샌더스에 대한 기사에서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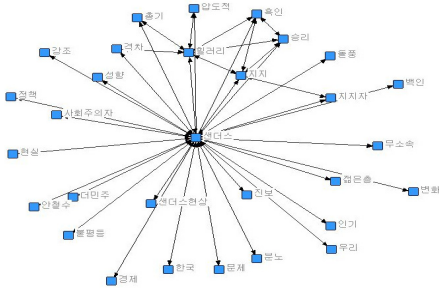


그림 1. 조선일보 의미연결망 분석결과

하지만 상위권에 제시된 단어들을 제외하면 각 중심성별로 다른 단어가 등장한다. '무소속'은 매개중심성에서는 높은 순위에 있으나 연결중심성과 근접중심성에서는 상위권 순위에 나타나지 않고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현실', '진보', '샌더스현상'이라는 단어는 사용빈도에서는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연결중심성·매개중심성·근접중심성·아이겐벡터 모두에서 상위권 순위에 나타났다. 이는 샌더스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출현빈도는 적지만 전체 맥락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도 전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조선일보 보도의 의미연결망을 살펴보면 '한국', '더민주', '안철수'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경향신문과는 다르게 진보진영과 정치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서로 '한국의 샌더스'인 듯이 경쟁하고 있다. 마치 '발가락이 닳았다'고 외치는 사람들 같다. - [주용중 칼럼] 누가 '한국의 샌더스'인가 (2016.03.3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샌더스' 현상을 자

신들의 정치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샌더스의 '분노의 주먹' 사진을 언급하며 "저도 대표 수락 연설 때 싸우겠다고 외치며 주먹을 쥐고 여러 번 강조했던 기억이 나는데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 샌더스 뜨자... 두 야당 '술가락 엇기'(2016.02.06.)

조선일보의 보도에 나타난 주요 단어의 중심성분석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주요 단어의 중심성 상위 값 : 조선일보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아이겐벡터
샌더스 126	샌더스 272.3	샌더스 126	샌더스 0.167
힐러리 122	힐러리 239.2	힐러리 130	힐러리 0.164
지지 120	지지 230.7	지지 132	지지 0.162
승리 95	승리 113.1	승리 157	승리 0.135
지지자 83	지지자 78.31	지지자 169	지지자 0.123
젊은층 67	정책 46.37	젊은층 185	젊은층 0.102
현실 64	젊은층 43.33	현실 188	백인 0.101
정책 63	현실 37.78	정책 189	흑인 0.099
사회주의자 63	사회주의자 33.73	사회주의자 189	현실 0.099
흑인 62	변화 30.57	흑인 190	사회주의자 0.097
백인 62	경제 30.5	백인 190	인기 0.097
경제 61	성향 30.48	경제 191	경제 0.094
변화 60	강조 27.7	변화 192	변화 0.094
인기 60	흑인 26.66	인기 192	정책 0.09
성향 56	인기 26.29	성향 196	압도적 0.09
강조 55	백인 24.99	강조 197	성향 0.087
압도적 55	돌풍 22.68	압도적 197	샌더스현상 0.083
샌더스현상 52	무소속 22.45	샌더스현상 200	강조 0.083
진보 52	진보 19.63	진보 200	우리 0.081
돌풍 50	불평등 18.24	돌풍 202	진보 0.081

2.2 동아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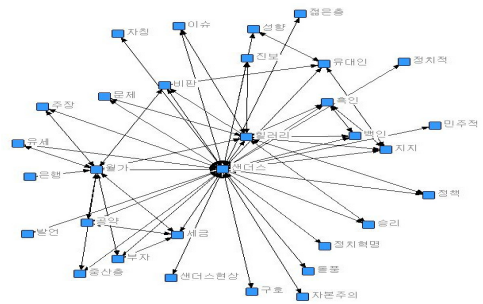


그림 2. 동아일보 의미연결망 분석결과

2.4 경향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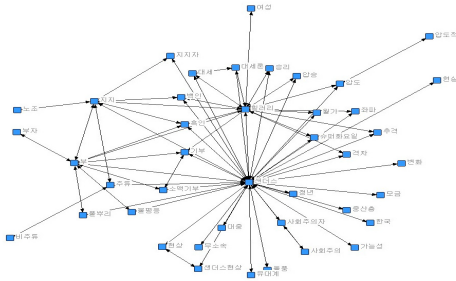


그림 4. 경향신문 의미연결망 분석결과

‘지지’, ‘좌파’, ‘변화’, ‘불평등’, ‘승리’는 사용빈도나 연결망상에서 중심이 되는 단어로, 노출빈도가 높은 동시에 다른 단어와 함께 등장하며 전체 문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좌파’, ‘변화’, ‘불평등’, ‘한국’은 경향신문에서만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부’와 ‘주류’라는 단어는 사용빈도에서는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연결중심성·매개중심성·근접중심성·아이겐벡터 모두에서 상위권 순위에 나타났다. 이는 샌더스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출현빈도는 적지만 전체 맥락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나타난 주요 단어의 중심성 분석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주요 단어의 중심성 상위 값 : 경향신문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아이겐벡터
샌더스 535	샌더스 4717	샌더스 1117	샌더스 0.121
부 487	부 3540	부 1165	부 0.114
힐러리 461	힐러리 2966	힐러리 1191	힐러리 0.11
지지 429	지지 2420	지지 1223	지지 0.106
주류 262	주류 622.8	주류 1390	주류 0.075
좌파 236	좌파 491.2	좌파 1416	좌파 0.069
변화 224	변화 444.4	변화 1428	변화 0.065
사회주의 216	사회주의 379.4	사회주의 1436	사회주의 0.065
현상 210	현상 375.5	현상 1442	현상 0.063
대중 208	대중 366.7	대중 1444	대중 0.062
돌풍 204	불평등 360.8	돌풍 1448	돌풍 0.061
현실 203	돌풍 352.1	현실 1449	승리 0.059
불평등 202	현상 341.5	불평등 1450	현실 0.059
승리 191	한국 297.9	승리 1461	불평등 0.058
흑인 188	흑인 291.4	흑인 1464	가능성 0.058
한국 185	승리 270	한국 1467	흑인 0.056
가능성 181	월가 223.4	가능성 1471	한국 0.054
지지자 172	지지자 223.1	지지자 1480	슈퍼화요일 0.054
슈퍼화요일 171	가능성 206.4	슈퍼화요일 1481	사회주의자 0.053
월가 167	슈퍼화요일 201.3	월가 1485	지지자 0.053

V. 결론

본 연구는 미 대선 후보 ‘버니 샌더스’에 대한 보도를 통해 국내 언론사의 이념지향을 파악함으로써 특정 언어와 집단이데올로기의 상호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현실, 인물, 사건들에 대한 의미는 이를 기술하기 위해 특정한 언어, 기호가 선택되는 과정까지 각기 다른 이해를 가진 집단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생산된다. 이러한 구성주의적 시각은 어떠한 사회적 맥락에서 의미를 구성하는지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물론 이때 이러한 의미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사를 작성하는 언론인, 조직의 관행, 외부요소 등이 모두 포괄될 수 있을 것이나 무엇보다도 특정 집단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가장 크게 반영될 것임을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언론사를 이념성향에 따라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으로 구분하여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을 대상으로 의미연결망 분석을 진행했다.

미국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는 이념성향에 따라 상반된 관점을 드러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버니 샌더스의 경우 미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스로 사회주의자임을 자처하며 정치혁명을 주장하는 인물로 기존 언론사의 보도 관행과는 차이를 보일 것이라 판단했다. 분석결과, 각 언론사는 보도의 양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특히 동아일보의 경우, 버니 샌더스를 중심으로 다룬 기사의 수가 매우 적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향신문은 많은 빈도수를 기록했는데, 버니 샌더스가 출마선언을 한 기점으로 그의 인물됨과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반면, 동아일보의 경우 코커스에서 첫 승리를 한 기점부터 샌더스에 대한 보도를 시작했으며, 이 또한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 등 미국 주류언론을 통한 단순전달에 그쳐 확연한 의미구성의 차이를 보였다.

언론의 이념성향에 따라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보수언론은 ‘승리’와 ‘지지’ 다음으로 ‘사회주의자’와 ‘흑인’이라는 단어를 주요단어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아일보의 경우 ‘사회주의자’라는 단어가 사용빈도에서는 높은 순위권에 나타났으나 의미연결망과 중심성값에서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전체 맥락에서 '사회주의자' 라는 단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음에도 샌더스에 대한 이미지를 사회주의자로 각인시키고자하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다. 진보언론은 '승리'와 '지지' 다음으로 '불평등'과 '문제'라는 단어가 높은 사용빈도를 보였다. 이는 버니 샌더스가 던지는 메시지와 공약을 중심으로 보도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샌더스가 지적하는 미국사회의 문제점을 한국사회의 문제와 접목해서 보도하려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전체맥락에서 많은 비중을 보이지는 않지만 버니 샌더스라는 인물을 보도함에 있어서 이념성향을 달리한 언론사들은 주요단어 선택에서 차이를 보이며 의미구성을 달리하고 있었다.

특히,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보도에서 '한국'이 주요 단어로 등장하고 있는데, 경향신문은 '한국'이라는 단어를, 조선일보는 '한국' 그리고 '더민주', '안철수'라는 단어를 통해 의미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이는 두 언론이 버니 샌더스 관련 이슈에 한국사회현상 및 문제점을 접목해서 뉴스를 구성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념을 달리한 두 언론사는 '한국'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프레임하고 있었다. 진보언론인 경향신문은 버니 샌더스가 지적하는 미국 사회에 드러난 문제점들이 한국과 다를 바 없음을 강조하면서 샌더스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미국의 진보 열풍처럼 국내에도 진보바람과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반면, 보수언론인 조선일보는 '한국'이라는 단어와 더불어 '더민주', '안철수'라는 단어를 연결시켜, 경향신문과는 다르게 구체적인 정당과 정치인을 비판하고 있다. 샌더스가 제기한 소득 불평등 및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한 미국 젊은층의 움직임은 한국사회의 문제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야당의 행보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샌더스와 닮았다고 언급한 정치인들을 노골적인 표현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이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함에도 전혀 다른 관점과 맥락에서 보도하는 경향성을 파악한 것으로, 사안에 대한 언론사의 의미구성이 이념적 지향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네 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점과 한 가지 특정이슈를 대

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국내 언론의 보도 특성을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후속연구에서는 분석에 활용한 단어를 정보원, 논조, 주제 등으로 세밀하게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한다면 보도의 맥락을 좀 더 전체적이고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버니 샌더스에 대한 국내 언론보도를 비교 분석했다. 주요 단어들의 사용빈도 뿐만 아니라 단어들 간의 연결 강도와 중심성을 토대로 뉴스를 구성하는 맥락에 대한 해석이 가능했으며, 이는 보도분석을 위한 방법론 확장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 문헌

- [1]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in-be-mnie-sanders-anxious-millennials-find-a-candidate-who-speaks-to-them/2015/10/27/923d0b74-66cc-11e5-9223-70cb36460919_story.html
- [2] 강원택, "한국의 이념 갈등과 진보·보수의 경계," 한국정당학회보, 제4권, 제2호, pp.193-217, 2005.
- [3] 김경희, 노기영, "한국 언론사의 이념과 북한 보도 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5권, 제1호, pp.361-387, 2011.
- [4] 심홍식, *한국언론의 보수·진보 프레임*, 한국한술정보, 2013.
- [5] S. Hall, *Culture, society and the media - 3 The rediscovery of 'ideology': return of the repressed in media studies*, Methuen & Co. 1982.
- [6] G. Tuchman,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1978, - (역) 박홍수, *메이킹 뉴스: 현대사회와 현실의 재구성*, 나남출판, 1995.
- [7] H. A. Semetko and P. M. Valkenburg, "Framing European Politics93Framing European Politics: A Content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Vol.50, pp.93-109, 2000.
- [8] 고영신, "정권의 성격변화와 언론보도: 대통령 친

인척 비리보도의 뉴스프레임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3권, 제1호, pp.156-196, 2007.

[9] 남인용, 박한우, “대권 예비후보자 관련 신문기사의 네트워크 분석과 홍보전략,” 한국정당학회보, 제6권, 제1호, pp.79-107, 2007.

[10] 박기수, “4대강 사업 뉴스에 대한 보도 프레임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5권, 제4호, pp.5-26, 2011.

[11] 성동규, “북한 군사위협 관련 보도 분석,” 신문과 방송, 신문비평, 제463호, pp.52-55, 2009.

[12] 임미영, 안창현, 감규식, 유홍식, “박근혜에 대한 보도 프레임 분석: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0권, 제3호, pp.457-498, 2010.

[13] 임순미, “정치인의 이미지 프레이밍: 안철수에 대한 보도 양태 분석,” 현대정치연구, 제5권, 제2호, pp.5-44, 2012.

[14] 주창윤, “북한 관련보도의 반성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방송영역,”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pp.3-27, 2000.

[15] 하승희, 이민규, “북한주민 생활 실태에 관한 국내 신문보도 프레임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제58호, pp.222-241, 2012.

[16] 한동섭, “북한관련 보도에 나타난 이데올로기 지형과 실천방식,” 언론과학연구, 제1권, 제2호, pp.250-294, 2001.

[17] 현경미, 김원용, “언론의 여성 정치인 관련 보도 프레임 연구: 국내 신문의 제17대 총선보도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제3호, pp.38-72, 2005.

[18] 석승혜, 장예빛, 유승호, “한국의 중도집단은 탈도덕적인가? - 이념성향에 따른 도덕성 기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9권, 제5호, pp.113-149, 2015.

[19] K. Mannheim, *세대 문제: 운동론의 관점에서 본 세대론*, (역)이남석, 책세상, 2013.

[20] John T. Jost, “The end of the end of ideology,” *American Psychologist*, Vol.61, No.7, pp.6-51, 2006.

[21] T. Sowell, *A conflict of visions: Ideological origins of political struggles*, Basic Books, 2007.

[22] 노동렬, “신문의 선거 보도행태와 사진이미지 활

용-5대 중앙일간지의 19대 총선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5호, pp.157-166, 2012.

[23] 이건호, 고흥석, “취재원 활용을 통해 살펴본 한국 신문의 보도시각 고찰: 미국 쇠고기 수입 관련 기사에 나타난 취재원 신뢰도와 유인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3권, 제3호, pp.347-368, 2009.

[24] 최현주, “한국 신문 보도의 이념적 다양성에 대한 고찰,” 한국언론학보, 제54권, 제3호, pp.314-348, 2010.

[25] 설원태, “역대 한미대통령 묘사프레임 비교분석 - 뉴욕타임스와 조선일보의 한미정상회담 보도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제49권, 제호, pp.107-144, 2012.

[26] S. P. Borgatti, M. G. Everett, and L. C. Freeman, “Ucinet for Windows: Software for Social Network Analysis,” Harvard, M.A.: Analytic Technologies, 2002.

저 자 소 개

이 혜 미(Hye-Mi Lee)

정회원



- 2013년 8월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언론학석사)
- 2016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박사과정)

<관심분야> : 소셜미디어, 소셜네트워크분석,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김 혜 영(Hye-Yeong Gim)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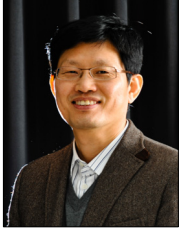


- 2013년 2월 : 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문학석사)
- 2016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박사과정)

<관심분야> : 네트워크분석, 소셜미디어, 미디어심리

유 승 호(Seung-Ho Ryu)

정회원



- 1996년 2월 : 고려대학교 사회학
과(사회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
교 영상문화학과 교수

<관심분야> : 문화산업, 문화정책, 문화사회학, HCI